

## 축단협, 가전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 축단협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는 농식품부가 예고한대로 개정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불사해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9일 축단협은 농식품부 앞에서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가와 소통 없이 방역 책임을 오로지 농가에 게만 전가하는 '사육제한·폐쇄 조치', '8대 방역시설 의무 설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야생멧돼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돈 농가에 과도한 방역시설 설치 요구는 비상 식적"이라며 "살처분 보상금 삭감, 과태료 강압,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휴지기 시행 등 그간 규제 강화 일변도로 방역당국이 움직였다. 축산농가만 잡는 초법적 방역 정책 개혁 대신 국가 책임의 방역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축단협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2일 농가 죽이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기습적으로 축산농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시 사육제한·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가전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한돈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8대 방역시설까지 의무화했다"고 분개했다. 아울러 그동안 농식품부가 ▲과도한 살처분과 이로 인한 계란 수입 ▲군 급식에 수입축산물 공급 방관 ▲ASF와 관련, 야생멧돼지 방역 소홀 ▲원유(우유)가격 정부 관여 등 축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농식품부가 오히려 농가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은 물론, 모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농가의 책임으로 전가 시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쏟아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축산신문>

축단협

NEWS

## 축산대체식품 육성에 혈세투입 ‘강력 반발’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2022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미래대응식품분야 연구과제 명목으로 축산대체 식품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약 5년 내 99억의 정부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축산농가들은 국민건강 위협과 축산물 소비위축, 나아가 축산말살의 교두보를 다지는 농정 부처의 악행에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미래대응식품’ 분야 연구과제는 발효유·계란 대체 식물성 소재 개발·배양육 기술개발 등으로, 축산대체식품 기술개발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최근 정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을 통해 배양육 등 대체육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R&D 투자 규모는 2018년 약 3억원대에서 2020년 15억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축단협은 소비자 선호가 있는 전통 축산물시장은 배척하고, 소비자 선호도 없는 배양육 등 식품첨가물 시장확대를 위해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명백한 혈세낭비라며, 축산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채 대체육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축산업 기반축소 저의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또 “그간 축산농가들은 배양육, 식물성분고기 등 대체가공식품은 생산과정의 과도한 항생제와 맛을 위한 식품첨가물이 투입되기 때문에, 식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수차례 지적했다. 더불어, 생산과정에 있어 가축사육보다 시설건축, 토양이용, 원료생산, 살균 등 훨씬 많은 화석연료 에너지가 소모돼 탄소중립에 반한다”며 “축산단체들은 대체가공식품 이용확대가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대응은커녕 이에 발맞춰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대체가공식품 이용확대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 농정당국의 축산말살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축단협은 시장에서 대체식품을 축산매대에 판매하는 등 소비자인식 왜곡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식품안전성 및 영양학적 수준이 낮은 대체식품 개발에 힘쓰기보다 선진국과 같이 ‘고기’ 또는 ‘육(肉)자’, ‘유(乳)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어정의 및 안전성검증절차 등 법적 제도에 앞장서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국농업신문〉

##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사료공정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및 악취 저감, 가금사료의 메치오닌 성분의 성분등록 방법 개선 등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99)을 2021년 12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메치오닌(Methionine)은 아미노산제로 근육형성, 면역 향상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농식품부는 작년 4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조사와 서울대학교와의 선행연구를 실시하였고, 학계 및 산업계(축산업 생산자단체 및 사료제조업체) 등과 조단백질 함량 제한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외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국민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반영했다. 조단백질은 단백질의 총칭으로 단백질은 가축의 세포성장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나 소화가 덜 된 단백질은 분뇨로 배출되어 온실가스, 악취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 ▲ 일부 양축용·섬유질 배합사료의 명칭 통폐합 및 구간 조정, ▲ 가금용(양계, 오리) 배합사료의 메치오닌 등 성분등록 사항 명확화, ▲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 등의 제도개선을 하였다.

개정안은 오리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의 유형을 닭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의 유형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기존에는 닭용 배합사료의 메치오닌에만 시스틴(Cystine)과 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methionine hydroxy analogue, MHA)를 합산한 양을 최소량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오리용 배합사료에도 메치오닌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닭과 동일하게 성분등록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료 원료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시행을 통해 축산분야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사료 관련 국민 불편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사료산업 및 연관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  
식품부

MGMS

농림축산  
식품부

NEWS

## 농업정책보험 가입률 꾸준히 늘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50%에 근접하는 등 농업정책보험 가입률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연말까지 농작물 손해에 대한 보험료 6608억원 등 농작물과 가축피해는 물론 농업인 안전보험 등으로 9000억원의 보험료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어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2021년 사업결과 및 2022년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 정책보험을 운영 중이다.

재해보험 운영 결과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5%로 전년(45.2%)에 비해 상승해 50%에 육박했다. 가축재해보험 93.6%(2020년 92.8%), 농업인안전보험 66.5%(63.7%) 등 전 영역에서 가입률이 증가했다.

특히 사과(93.1%), 돼지(96.9%), 가금(95.6%)의 경우 90% 이상의 높은 가입률을 기록했다. 운영 규모가 가장 큰 벼 품목은 58.7%로 전년(54%)보다 가입 농가가 늘었다.

여름철 풍수해 피해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규모와 손해율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농작물재해보험에는 연말까지 총 6608억원(손해율 88.4%), 가축재해보험 1347억원(73.95), 농업인안전보험 720억원(77.0%), 농기계종합보험 274억원(52.1%) 등 총 8949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가축보험은 폭염피해 보장 목적의 단기가입으로 인한 장기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가금품목 대상 폭염 보장을 특약으로 운영한다. 돼지·오리 보험 가입 시에는 축산법상 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적용하고, 육계 보험에 대한 적정사육두수 적용은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독일 스모크햄 방식 그대로! '다향 훈제오리 180' 출시



### 다향오리

다향이 국내산 1등급 무항생제 오리고기만을 고집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신제품 '다향 훈제오리 180'을 선보였다. '다향 훈제오리 180'은 자신이 먹는 제품의 원재료부터 성분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MZ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출시한 프리미엄한 훈제오리 슬라이스 신제품으로, 100% 국내산 무항생제 1등급 오리고기만을 사용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향은 이번 신제품 '다향 훈제오리 180'에 독일의 스모크햄 방식을 적용했다. 독일의 정통 방식인 스모크햄 방식은 참나무 훈연을 통해 갈끔한 육향과 쫄깃한 식감을 선사한다. 장시간 독일식 훈제 과정을 거친 '다향 훈제오리 180'은 오리고기의 겉껍질은 쫄깃하면서도 속은 촉촉한 육즙이 가득한 것이 특징이다. '다향 훈제오리 180'은 한입에 먹기 좋은 슬라이스로 포장되어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며, 조리방법도 간단하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약 2분간 볶아주거나 전자레인지 사용 시 1분 30초간 조리하고, 에어프라이기에서는 180도에서 3분만 조리하면 된다.

또한 '다향 훈제오리 180'은 연말연시를 맞아 파스타, 오리고기 화이트와 같은 홈파티용 요리나 간단한 안주, 반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향 관계자는 "올 연말도 집에서 가족들과 소박하게 보내는 '집콕 연말'이 예상되는 가운데 많은 소비자들이 음식만큼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건강하게 즐기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출시한 프리미엄 신제품 '다향 훈제오리 180'로 건강과 맛 모두를 잡는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머니S>

참프레

NEWS

## 공식 '홈페이지' 개편



동물복지 닭고기 기업 참프레가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공식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독창적이고 간결하게 재구성한 이번 개편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가치와 고객 중심 가치를 기반으로 건강한 식문화와 고객 건강증진 및 글로벌 식품 회사 도약이 담겼다.

특히 현대적이고 모던한 디자인에 기업 비전과 제품소개 및 참프레 제품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고객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 참프레몰 ▲ 고객의 소리 등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또한 동물복지 닭고기 최초 기업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내용이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영상과 함께 설명해 건강한 닭고기 사육과 안전한 생산과정이 소개돼 고객들이 동물복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이해를 높였다.

이 밖에도, 기존에 없던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해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참프레 마케팅 박제원 팀장은 “고객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창구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경영철학·비전·동물복지·SNS 등을 감각적이고 재미있게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해 접근성을 높였다”며 “늘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프레는 새롭게 선보인 공식 홈페이지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고객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SNS로 오픈이벤트를 진행한다.

<브레이크 뉴스>

##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 선정



### 사조원

전남 나주 농업회사법인 (주)사조원 나주공장이 한국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21년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도는 최근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한 '2021년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 온라인 시상식에서 사조원 나주공장이 닭오리 부문 우수 도축장에 뽑혔다고 지난 12월 20일 밝혔다.

사조원은 1965년 나주시 금천면에 회사를 설립한 후 닭 오리 도축장가공장을 운영하면서, 삼계탕오리훈제 등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매년 도축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최근 3년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후보를 정한다.

상위권 도축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가 현장 점검해 베스트 도축장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 도내 21개 업체를 포함해 전국 132개 업체를 평가했는데,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은 사조원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소비자도 전남산 가금육을 믿고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